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지 장기 임차(최장 30년) 청년 농업인 모집

승인 : 2025-02-14 10:50:19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 모집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전경/경기본부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17일부터 28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농지는 1000m²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 받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4월경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